

李 “국힘, 尹 즉각 제명”… 金 “尹 판단 존중해야”

이재명

김문수

PK 유세…이들 연속 영남서 격돌

李 “민주성지 부산서 국힘 심판을”
金 “李의 독재…나라 위기의 진앙”
이준석 “국힘, 尹에 목줄잡힌 정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일제히 부산·경남(PK)을 찾아 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부산 서면에서 벌인 유세에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면 군사 쿠데타에 대해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맞나. 민주 정당이 맞나”라며 “이제 그 당도 변하든지 퇴출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곳 부산은 민주주의 성지 아닌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맞나”라고 말한 뒤 “이번에도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심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했다”며 “투표를 포기하는 분이 없어야 한다. 포기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그들의 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서도 “(대선 결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김경수 선대위원장, 황현필 한국사 강사, 해양대 학생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

들이 있지만, 결국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변에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며 “여러분도 절박한 심정으로 한 분이 세 표씩 확보해달라. ‘세 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인 만큼 빠짐없이 투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다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할지) 제가 듣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가 나라 위기가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물론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책임이) 크지만, 본인이 위기의 진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거론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거의 독재, 독주”라며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민주주의라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감옥 안 가고 자기 재판 안 받고 자기는 기소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민주당이라면 민주주의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민주를 모르고 가장



김문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진주시 진주광미사거리에서 유세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재적인 행보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나 존폐 등에 관한 질문에는 “여가부를 없애야 한다는 것도,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와는 조금 다른 가정과 가족에 대한 정부 역할을 섬세하게 확대해나가고 책임지는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부산시유림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만약 단일화한다고 하더라도 큰 것이 강압적으로 작은 것을 억누르는 형태라면 국민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 것이 작은 것에 대해 강압적으로 가는 움직임은 젊은 세대가 ‘극혐’(극히 혐오)하는 찍어 누르기”라며 “실제로

‘김덕수(김문수·한덕수)’ 얘기하면서 추진됐던 국민의힘 내홍이 역압적인 분위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국민에게 지탄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이미 대선을 포기하고 서로 당권 투쟁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무조건 2등 이하를 할 수밖에 없는 김 후보보다 파란을 통해 1등을 할 수 있는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주면 다행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에 대해선 “당 대표를 내쫓을 때는 일사불란하게 모함했지만, 국민을 위해 함에 빠뜨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호의를 베풀고 있다”며 “그것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목줄 잡힌 정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더현대 광주’ 연간 방문객 3천만명 추정

광주시, ‘상권 영향평가’ 연구용역 대규모 점포 3개 경제효과 37조원 피해 우려 업종엔 특례보증 등 확대

광주광역시에 건립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연간 방문객이 30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광주광역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복합쇼핑몰상권영향평가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연구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보고회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 결과, ‘더현대 광주’의 연간 방문객 수는 3000만명이며, 이 중 주변 점포 동시 이용객은 1900만명으로 추산됐다. 시설 투자 1조2000억원, 생산유발효과 2조364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996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2600명 등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대전·대구 등 타 지역 복합쇼핑몰이 해당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화장품과 커피·제과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매출액이 상승했고, 타 지역민 이용 비중도

4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광주 여건에 접목하면 ‘더현대 광주’ 반경 5km에서는 화장품 업종을 제외한 슈퍼마켓, 음식점, 의류·패션·잡화, 커피·제과, 가전·가구·생활잡화 업종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광주 전체적으로는 커피·제과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특례보증 확대 등 다양한 상생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신세계백화점 확장, 스타필드 광주 등 3개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경제효과와 37조62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투자(6조9466억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3조684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조7865억원, 취업유발효과 7만2939명으로 추정되며, 대규모 점포 운영에 따른 연간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조723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5100억원, 취업유발효과 4만6933명으로 분석됐다. **정성아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티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홈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업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D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